

구충곤 화순군수 “고향방문 자제해 달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향우 방문 자제 요청 “고향 부모님 안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구충곤 화순군수가 향우에게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구충곤 군수는 주말을 앞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향우들에게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지금, 사적 모임과 지역 간 이동량을 줄이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양상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고 위협적인 상황”이라며 “20%대에 머물던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까지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향우들에게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한 것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휴가철과 방학철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근 일주일의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4단계 시행 이후 수도권의 이동량은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증가했다. 구 군수는 “화순은 광주와 인접해 있고 외지 방문객이 많아 늘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며 “고향 방문 자제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 친지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은)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수도권을 방문하신 분은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 달라”면서 “우리 군도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이날 초부터 매일 2차례 마을방문을 통해 ▲수도권 자녀와 친지에게 휴가철 고향 방문 자제 요청하기 ▲수도권 및 다른 지역 방문 자제하기 ▲사소한 의심 증상에 진단 검사하기 등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 취약지 관리 강화 총력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곡성군이 8월 30일까지 물놀이 안전 취약지역 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는 총 5개소로 호곡나루터, 두가현 앞 세월교, 곡성청소년야영장, 압록유원지, 구죽곡캠핑장이 대상이다. 곡성군은 총 15명의 물놀이 안전요원을 취약지역에 분산배치했다. 또한 지난해 수해로 유실된 물놀이 금지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설치도 완료했다. 특히 곡성군은 지역소방대의 협조를 받아 안전요원들에게 구명환 던지기, 심폐소생술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교육도 진행했다.

현재 안전요원들은 담당 구역에서 순찰과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군 안전 관리 담당자는 매일 취약지역을 방문해 안전요원 활동과 시설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2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더욱 강화된 순찰활동을 펼친다. 곡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물놀이 이용객이 감소했지만 수난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입수,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을 금지하고, 물놀이 가능한 곳에서는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나주시 천연염색지도사협회전 개최

나주천연염색박물관 내달 12일까지

하얀 천 1필에 작가 156명이 각각 독자적인 기법으로 완성한 '1인 1필' 염색 작품이 일반에 공개된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오는 8월12일까지 나주시 다시면에 소재한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새한국천연염색지도사협회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색의 경계를 넘다' 부제로 열리는 전시전에는 협회 소속 작가 156명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작가들이 각각 자신만의 염

색기법을 활용해 천 1필에 모아 담은 156점의 대형 작품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1인 1필' 염색 작품은 하나의 전시 공간에서 다채로운 천연염료를 활용한 각기 다른 염색·표현기법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김태권 (재)한국천연염색지도사협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작품 활동을 활성화하고 천연염색 애호가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대전면에 한재골 수목 정원 조성 기념 식수행사 열어

84,260㎡ 규모 조성...산책길·잔디광장·유아숲체험원 등 갖춰

담양군은 지난 23일 대전면 평장리 일대에 약 84,260㎡ 규모로 조성된 한재골 수목정원 조성을 기념하는 식수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최형식 군수와 김정오 군의회의장, 대전면 주민대표 등 최소한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한재골 수목정원 내 중앙광장에 기념수를 심었다. 한재골 수목정원은 총사업비 4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벵골나무·산딸나무 등 수목과 잔디광장 5개소, 산책길 2.1km 등이 조성됐다.

또한 별도의 예산으로 정원 내에 2억 원을 들인 유아숲체험원이 완공됐으며,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어린이 도서관은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자연여름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조성이 지연됐지만, 앞으로 이곳이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어린이의 생태학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담양을 관광객이 사시사철 찾아오는 아름답고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정원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 사업 선정

구례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 주민생활 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구례군은 '섬진강으로 마실 나온 지리산 미니정원'이라는 사업으로 공모에 도전해 당선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도심 속 미니 정원을 꾸미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원예치료 방식을 도입하고, 미니 정원 전시회와 공모전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사업들을 계획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최근 중앙정부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맞춤형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 위해 공모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례군은 이런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정책 혁신 팀을 신설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개선, 재난·재해 예방, 상하수도 정비, 환경보호 분위기 확산, 관광 활성화 등 각종 분야의 공모에 도전해 2021 상반기에 공모사업 27건 1,120억 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군은 부족한 자원 확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의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장성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 받습니다

5개 부문 접수...10월 1일 장성군민의 날 기념식서 수상

장성군이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장성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접수 분야는 교육·문화·예술, 사회 복지 및 체육, 향토 방위, 산업 경제, 농업의 5개 부문이다. 자격 요건은 ▲각 분야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자 ▲도 단위 이상의 공식 대회나 전시회, 학술 연구 등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거나 창의·개발 정신을 보여줘 국가적 보존 가치를 공인 받은 자 ▲해당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개발·육성에 몰입함으로써 공을 세운 군민이다.

추천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장, 읍·면장이 할 수 있다. 단,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주 2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성군은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1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은 10월 1일 장성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숨은 공로자나 단체가 장성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함평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2회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예매 www.hpcc.co.kr 문의 061)320-2225